금수산기념궁전

금수산기념궁전

조선 · 평양 · 조선화보사
1 9 9 6

불멸의 꽃—**김일성**화

주체의 최고성지—금수산지구

《금수산기념궁전》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수령, 우리 당과 국가의 창건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시였으며 세계정치의 탁월한 원로이시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안치한 대기념궁전이다.

기념궁전은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금수산지구에 자리잡고있다.

기념궁전으로 꾸린 금수산의사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랜 기간 계시면서 당과 국가 사업을 령도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고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당의 한없이 고결한 의리심과 전체 인민의 순결한 충성심에 받들려 건립되였던 금수산의사당은 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취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성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중요한 회의들을 몸소 지도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을 작성발표하시였으며 인간사랑의 위대한 정치를 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각계각층의 우리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 남녘의 형제들과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만나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을 비롯한 고위인사들과 혁명조직대표들,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외국손님들과 벗들을 접견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군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고 영광에 찬 혁명활동이 수놓아져있는 금수산의사당이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정중히 꾸려져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안치하고 그이의 서거 한돐이 되는 1995년 7월 8일에 개관을 선포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에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으로서 20세기의 년대기를 가장 빛나게 장식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웅서사시적혁명사적, 불멸의 사상과 업적이 고이 간직되여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이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아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우러러 뵈오며 그이께서 이끌어오신 혁명위업을 대대손손 빛내여나가게 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더욱 두터이 하며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그이를 뵙고 높이 숭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속에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될것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예지, 풍모와 덕망은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원천으로, 전인류의 공동의 재보로, 불멸의 해발로 될것이다.

인류사에는 《금수산기념궁전》과 같이 국가령도자가 오랜 기간 집무장소로 사용하면서 정치활동을 벌려온 유서깊은곳에 서거한 수령을 생전의 모습대로 안치하고 그 성지를 형식과 내용, 규모에서 비길데 없이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린 대기념궁전은 없었다.

력사에 없는 이 성업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루어놓으시였다.

일찌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고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다해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충효심은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서거하신 이후에나 변함이 없으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

는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이시기전에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비통한 그날로부터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서거하신 수령님을 어디에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것을 인민의 수령을 대하는 전사의 관건적인 도덕의리문제로 보시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국보중의 국보인 금수산의사당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에 상응하게 금수산의사당을《금수산기념궁전》으로 더없이 숭엄하게 꾸려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실수 있도록 몸소 구상하시고 그 실현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시였으며 수십차례에 걸쳐 현지에 나오시여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의 모든 구성과 세부들, 궁전안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대리석립상과 그 배경의 붉은 아침노을, 홀의 벽과 바닥, 장식돌과 대돌의 색갈, 실내건축력사에 없는 대계단, 조명의 도수에 이르기까지, 궁전밖의 드넓은 광장과 전동선, 편의봉사시설 등 그 어느곳에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피심이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금수산기념궁전》이 건립되기까지의 하루하루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셔야 할 기념궁전을 최고의 성지로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충효심의 발현의 나날이였다.

현지에서 뜻깊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소집된 그 날에나 피눈물속에 넘겨야 했던 1994년의 마지막 날과 새해 설날에나 현지지도의 길에서 불원천리 달려오신 그날에 그리고 현지에서 보내신 이른새벽, 깊은 밤중에나 오직 그이의 심중에 뜨겁게 굽이친것은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그 한가지뿐이였다.

그이의 그 충정에 받들려 기념궁전은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립될수 있었다.

하기에 《금수산기념궁전》이 개관되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바치신 정성의 최고정화라고 격찬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구현하고있는 성스러운 혁명의 대전당이기도 하다.

언제나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시고 가장 빛나게 실현시켜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로고를 기울이고계시는 그이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민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있는 모습에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받아안으시고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실 《금수산기념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하도록 하신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영원한 삶의 기둥으로 삼으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궁전의 모든 구성과 세부에 훌륭하게 반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이 수령님과 영원히 혼연일체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영광을 지니게 하여주시였다.

참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안치하고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되게 한것은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특기할 사변이며 자주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업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우리 **김일성**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랑이다.

지금 《금수산기념궁전》으로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과 벗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려는 전민족적, 인류사적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 존엄과 자랑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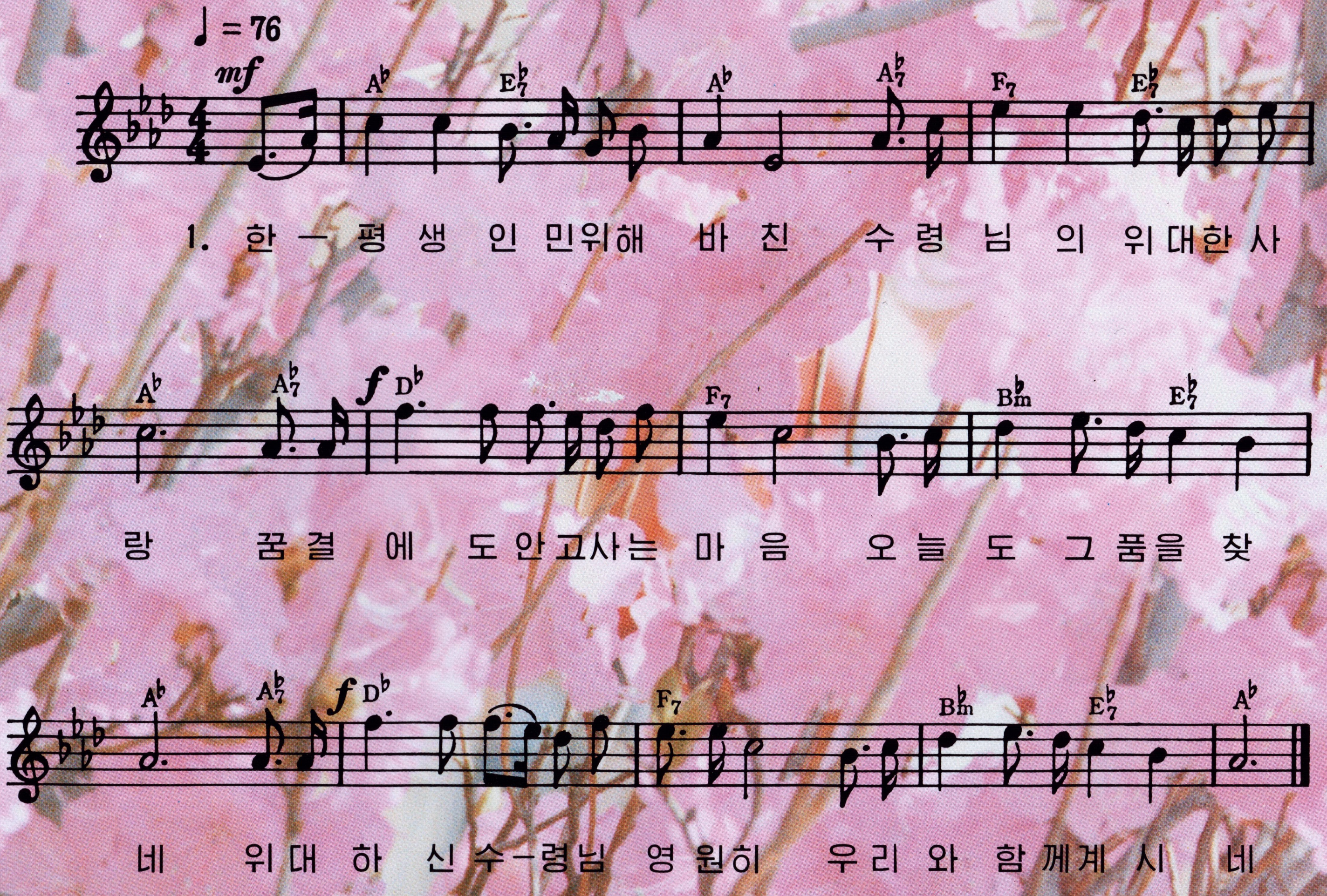
조선의 국화—목란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숭엄하고 장중하게

작사 집 체, 작곡 전정근



2.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3. (2절반복)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결 정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데 대하여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80여성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한돐이 되여온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셔온 민족의 크나큰 행운과 영광을 절감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절절한 흠모의 정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창건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

취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자주적인 정권,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을 세우시고 제국주의침략을 단호히 물리치시여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기상을 누리에 떨치게 하시였으며 모든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유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을 제시하시고 분렬된 조국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하기 위한 온 민족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고결한 의리를 지니시고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 평화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인류의 자주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음으로써 수난많던 우리 민족은 존엄있고 힘있는 자주적인민으로, 이 땅우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고 사회주의기치를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영원한 상징이시다.

우리에게 오늘의 영광과 행복, 찬란한 미래를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전체 우리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이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한돐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랜 기간 계시면서 당과 국가 사업,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하여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되게 할것이다.

둘째, 《금수산기념궁전》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생전의 모습그대로 안치할것이다.

셋째, 《금수산기념궁전》안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의 전모를 보여주는 《주체사상로작관》을 새로 꾸릴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95년 6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

엄숙히 거행된 개관식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한돐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공동결정에 따라 건설된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이 1995년 7월 8일 엄숙히 거행되였다.

이날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장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속에 휩싸여있었다.

1994년 7월 피눈물속에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였으며 100일중앙추모회를 거행하였던 이곳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평양시와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로동계급대표, 협동농민대표, 인민군군인대표, 청년대표들을 비롯한 수만명의 각계층 군중들과 당, 국가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책임일군들, 연고자, 접견자,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렬사유가족들, 남조선과 해외에서 온 동포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로 꽉 차 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자!》라고 쓴 구호를 비롯한 대형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붉은 천을 끊으시여 《금수산기념궁전》개관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당으로 꾸려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더불어 언제나 우러르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함께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영광을 지니게 된 크나큰 감격으로 가슴들먹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인민군 차수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일군들, 영웅들과 공로자들, 각계층 대표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옆에는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영접들어 총!》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동행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단을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정중히 안치되여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각계층 군중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시름을 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길이길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주체의 혁명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갈 충성의 맹세를 마음속 깊이 다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기념궁전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시작이 선언되자 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히 주악되였다.

개관식 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청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공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개관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가 하였다.

개관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떨쳐갈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의지와 혁명적열의가 넘치는가운데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최고성지와 더불어 조선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간직되여 천세만세 영생할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붉은천을 끊으시여 《금수산기념궁전》개관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대계단을 오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 주석단

한없이 경건한 마음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는 개관식 참가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가 개관사를 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평양의 금수산지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끄신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고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신 빛나는 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곳이다.

여기에 《금수산기념궁전》이 건립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대로 안치되여있다.

이곳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숭상하며 그이의 영생을 바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주체의 최고성지로 되고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받들어모신 이 존엄높은 성지에서 사람들이 처음 찾게 되는곳은 수령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며 그이께로 달려가 안기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홀이다.

드넓은 홀은 찬란한 려명이 밝아오는듯한 황홀한 광채로 가득차 있는데 그 가운데 붉은 아침노을을 배경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마치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여오르는 아침노을속에 태양처럼 서계시는듯하다.

립상은 옥처럼 맑고 눈처럼 희며 보석처럼 빛나는 대리석으로 형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에서는 만고풍상을 헤치시며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고 시대의 지도사상을 주신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 희세의 탁월한 수령의 위인적풍모가 뜨겁게 안겨온다.

드넓은 이 홀의 조형적인 천정, 여러가지 고급석재들로 장식된 벽, 주단을 펼친듯 줄무늬를 놓은 윤기도는 바닥, 위대한 수령님을 천년만년 옹위하듯 주런히 줄지어 있는 억센 기둥들, 그 모든것이 수령님의 립상을 더욱 숭엄하고 돋보이게 하며 홀을 정중하면서도 아담하게 감미하여주고있다.

거룩하게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앞에서 방문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이채로운 대계단으로 오른다. 이 계단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홀로 오르는 계단이다.

건물안의 계단으로서는 건축력사에 없는 계단이다.

계단의 모든 요소들은 잘 조화되여있다.

란간 기둥과 손잡이는 특유한 색갈의 대리석으로 장식되였다. 그것은 마치 흑진주와 같은 진귀한 보석을 다듬어세운듯이 우아하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장중한 선률속에 이 계단을 한계단한계단 조용히 밟아오르느라면 오로지 인민을 위해 80여성상을 고스란히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생애가 더듬어져 한없이 숭엄해지고 경건해진다.

방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앞에서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이시였지만 한평생 겹쌓인 로고를 아랑곳 않으시고 더욱 정력에 넘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끄시던 그이께서 편안히 쉬시면서 영생하시옵기를 빌며 정중히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투지와 신심을 가다듬게 된다.

기념궁전건물밖에 나서면 궁전정면쪽으로 드넓은 광장이 시원스럽게 펼쳐져있다.

광장 량옆에는 우리 인민의 신념의 구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붉은색 글발이 목란꽃부각받침돌우에 세워져있다.

광장주석단은 긴 채양을 이고 기념궁전기본건물과 련결되여있다.

보기드문 대규모의 이 주석단은 고급석재로 훌륭히 장식되여있다.

1995년 7월 8일 이 주석단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이 거행되였다.

기념궁전건물외부에는 넓은 교양마당이 있다.

기념궁전야외 곳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꾸시던 나무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던 시험포전들, 갖가지 사적물들이 있어 수령님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있다.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륜환식궤도전차가 다니고있으며 휴계실, 짐보관실, 위생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있다.

우리 인민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찾게 되는 이 주체의 최고성지는 조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천세만세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인민들이 오르내리는 대계단

공기샤와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방의 붉은색 돌문

《금수산기념궁전》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광장 주석단

《금수산기념궁전》의 동쪽면

광장의 란간

소나무들이 있는 궁전정원의 일부

《금수산기념궁전》정문의 일부

《금수산기념궁전》에는 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날아든다.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드나드는 길

주체의 최고성지를 감돌아 흐르는 운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을
새긴 쌍천다리 표식비

운하에 놓인 쌍천다리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리용하는 궤도전차들

궤도전차 내부

궤도전차 종점

주체의 영원한 태양

인류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기시였으며 세기의 유일무이한 위인으로 높이 칭송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그이께서는 1912년 4월 15일에 탄생하시여 1994년 7월 8일 서거하시기까지 한생을 오로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된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령활하게 이끌어나가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시였고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의 초행길을 개척하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좌절과 반사회주의책동의 혼잡속에서도 조선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였다.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세금제도가 철페되였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모든 정치사상생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제도가 마련되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구세주로, 사회주의조선의 건국자, 건설자로 높이 받들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셔왔다.

하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인류가 알지 못하는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오시였다.

그이께서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모진 고난과 시련을 헤치시였으며 분렬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불행과 재난을 뚫고오신것은 오직 인민을 위하여라는 거대한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이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오신 빛나는 사적은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에 력력히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하시기 위해 이곳에서 위대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을 구상하시고 작성발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흰눈을 차우에 얹고 북방의 도시들을 누비시였고 새벽공기를 가르시며 포전으로, 공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인민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의 당 및 국가 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인사들을 만나시여 당과 국가 건설 경험으로부터 한 농장의 농사경험과 어린이보육교양경험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모르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어버이로서 하셔야 할 일이라면 가파로운 벼랑길, 무릎을 치는 감탕길도 걸으시고 비바람, 눈보라속을 헤치시였으며 인민이 당해야 할 시련과 고통이라면 자신의 한몸을 내대시여 막으시였다.

인민을 위해 그리도 근심이 많으시고 동지의 아픔을 두고 눈물이 많으셨던 수령님이시였다.

그러하신 그이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혁명의 령도자이기전에 인민의 한성원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세우시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였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소박한 생활을 하시면서 인민의 힘, 인민의 지혜를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적극 불러일으키시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거하시기 이틀전에도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불같이 사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듯 헌신분투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결한 생애는 비록 끝났지만 그이의 빛나는 혁명업적과 숭고한 모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서재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신년사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을 발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던 회의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처음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도 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을 구상하시고 작성하시였다.

그전 모습대로 보존되여있는 기념궁전의 회의실들에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을 발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들이 깃들어있다.

경제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90.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을 맞이하시던 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홀과 응접실과 휴계실들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만나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다른 나라의 당과 국가 령도자들, 저명한 사회계, 실업계, 종교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비롯한 각이한 사람들을 접견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 경험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탁월한 예지로 밝혀주시군 하시였으며 생활적인 이야기도 다심하게 나누시였다.

새로 만든 식료품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87.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 부문사업을 지도하시던 홀

평양시 전망계획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8. 1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물로 드린 승용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비오는 새벽에도 눈내리는 깊은 밤에도 공장과 농촌, 어촌과 산촌을 찾아 기름묻은 로동자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민들과 담화도 하시고 아이들의 귀여운 볼도 다독여주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였다.

승용차에는 그 로고의 길에서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생애의 자취가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시던 렬차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이 렬차를 우리 인민은 《렬차집무실》이라고 부른다. 렬차로 현지지도의 떠나면 길을 이어가시는 그 시간에도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색과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구상을 계속하시였고 이르시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89. 11)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이 어려있는 포도원

정원에 있는 포도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6. 9)

경제적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잘 가꾸도록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8. 5)

쪽가래나무

잣나무

비타민나무

짧은잎은색종비나무

칠엽수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일대에는 시험포전들이 여러 곳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서 벼와 강냉이, 과일나무들, 열매나무들을 비롯하여 경제적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몸소 심고 가꾸시군 하시였다.

그 식물들은 오늘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 퍼져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색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5. 4)

《금수산기념궁전》정원에 핀 꽃들

휴계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몸소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들과 방안들을 구상하시고 작성발표하시였으며 관계부문일군들을 부르시여 사업방향과 방도들도 가르쳐주시였고 남조선과 해외의 통일인사들도 만나주시며 실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친필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문건에 남기시고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1988. 9)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진규제1부의장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 4)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고문인 문익환목사를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89. 3)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련합회》 고문 김성락
목사를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82. 10)

해외에서 애국적민주주의운동을 벌리고있는 작곡가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87. 10)

범민련 림민식사무총장일행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93. 4)

세계 자주화위업에 로고를 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3.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부수반들, 당수들, 대통령특사들을 비롯한 외국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의 축하방문을 받으시였다. (1987. 4)

면담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의 국가, 정부, 당 수반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을 자주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을 벌려나가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탁월한 예지와 고매한 덕망은 사람들을 크게 매혹시키고있으며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높은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6. 3)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전하가 올린 선물을 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94)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일행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7. 9)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상급특별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7. 6)

기념촬영을 위해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한사람한사람 손잡아 주시였다. (1992. 3)

《금수산기념궁전》에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덕망이 그대로 어려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혁명투쟁의 불길을 함께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수십년세월 행처를 알길 없었던 혁명가유자녀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국경넘어 멀리 있는 혁명활동연고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하여준 장울화동지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85. 4)

국제주의전사 야. 떼. 노비첸꼬를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9. 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글을 쓰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91. 2)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푸른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1992. 2. 16
김 일 성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였다.

두분께서는 인민을 위해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시였으며 밤도 인민때문에 같이 지새셨고 찬비도 같이 맞으시였으며 인민에게 주는 사랑도 함께 베푸시였다.

혁명의 성산—백두산천지의 쌍무지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수령님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충효심의 최고정화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신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신다고 충정에 넘치신 말씀을 하시면서 수령님을 생존해계실때보다 더 잘 모시기 위해 온갖 지성과 심혈, 로고를 다 바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은 우리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께 지어드린 집이고 수령님께서 오래동안 사업하신곳이기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차지할 권리가 없다고, 수령님을 여기에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은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의 최고성지로 건립되게 되였다.

《금수산기념궁전》건설은 이전의 금수산의사당건물을 형태적으로는 그대로 두면서도 내부를 기념궁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새롭게 꾸리는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속에서 당과 국가, 군대의 다망한 사업을 맡아보시면서도 기념궁전건립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몸소 틀어쥐시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건설대상들과 세부들을 직접 구상하시고 실현시켜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안치하는 사업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의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고 만민이 우러르는 태양과 같으신 수령님을 높이 받들도록 의사당건물의 종심이고 제일 높은 곳이기도 한 지금의 위치에 태양처럼 모시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여기에 인류가 도달한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총동원하여주시였으며 건축학적, 의학적 요구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홀을 검소하면서도 점잖게 꾸려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풍모가 살아나고 군중들의 시선이 오직 수령님께로만 쏠리게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요소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립상을 모시는 홀건설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홀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님의 립상이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립상을 형상함에 있어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뒤짐을 지시고 수수한 양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시였으며 립상대돌의 높이도 낮으막하게 하여 인민들이 가까이에서 수령님모습을 뵈오며 수령님과 친근하게 뜻과 정을 나누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립상배경에 피여오르는 아침노을빛 조명을 주어 수령님모습이 태양처럼 빛나게 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립상홀 천정은 전통적인 릉천정처리방식으로 꾸리며 특히 바닥에 진한 색의 돌로 장식줄들을 주어 주단을 펴놓은것같게 하도록 하시여 사람들이 홀에 들어서는 순간 제집에 들어오는듯한 따뜻한감을 느끼게 하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립상홀은 더없이 훌륭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기념궁전건물형성에서 이채를 띠는 대계단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비범한 예지에 의해 훌륭하게 꾸려졌다.

그이께서는 80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어떻게 우리 인민들이 계단식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뵙겠는가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뜨겁게 새기며 오르도록 계단을 놓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과 인민들의 혈연적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두팔을 벌리시고 인민들에게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것같게 계단을 형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계단은 아래부분에서 활짝 펼쳐지게 건설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계단을 오를 인민들의 편리에도 마음쓰시며 가장 알맞는 계단 한단한단의 높이와 너비를 규정해주시였다. 그리고 고령의 몸이거나 육체가 불편하여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시여 계단실한쪽옆에 특별히 승강기를 놓아 리용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완벽하게 건립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정성에는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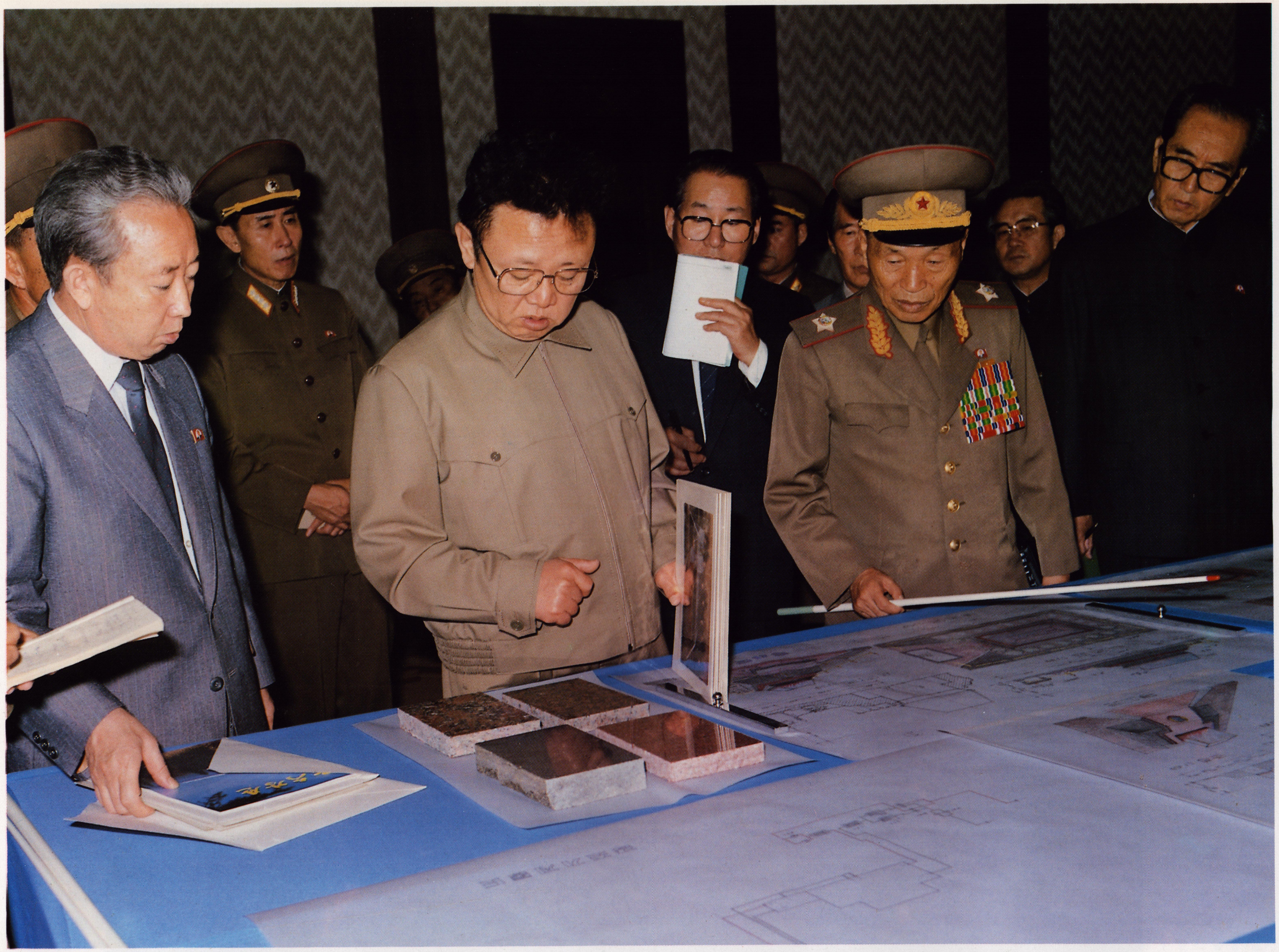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본래의 의사당창문들을 모두 막아 릉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주시였고 기념궁전정면의 높은곳에 공화국국장대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주석단을 기념궁전과 광장에 잘 어울리게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드넓은 기념궁전광장에는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인민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금수산의사당앞을 광장으로 형성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관련한 국가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신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찾아오는 군중들을 위해 특별히 전용궤도전차를 놓아주시고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추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갖 지성을 바쳐 《금수산기념궁전》을 건립하시여 만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뵈올수 있게 해주신것은 참으로 수령님에 대한 충효성의 극치이며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해놓으신 최대의 성업으로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기념궁전》건설방향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4. 8. 2)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쓰일 자재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4. 9. 14)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금수산기념궁전》광장건설방향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4. 10. 15)

《금수산기념궁전》외부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4. 10. 15)

《금수산기념궁전》내부 대계단건설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1. 30)

2월 16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조선인민은 전통적으로 이날을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로 가장 환희롭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우리 인민이 이날을 즐겁게 보낼수 있게 여러가지 조치도 취해주시고 해마다 이날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뜻이 축하해주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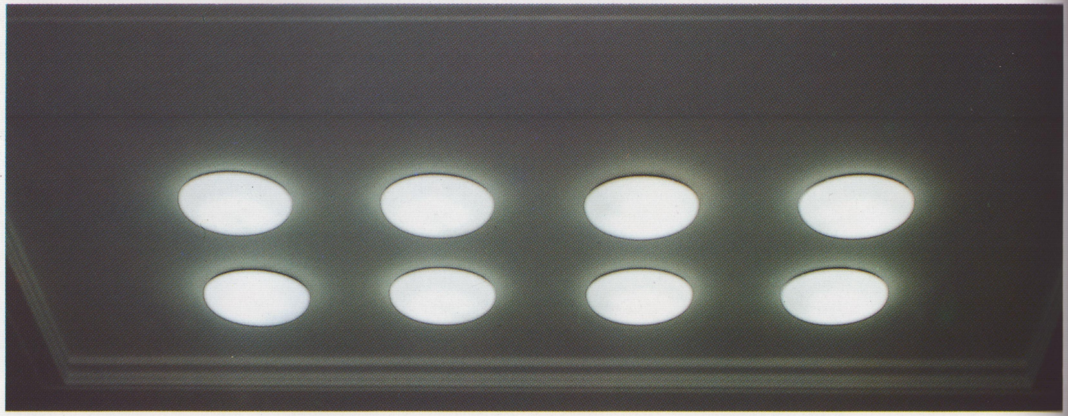
그러나 언제나 생신날을 쇠시는것을 모르시고 집무에 여념이 없으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처음 맞는 이 생신날에 그이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찾으시여 현지에서 기념궁전건설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천백배의 충효심으로 승화시키시여 기념궁전을 최고의 성지로 꾸려나가시는데 온갖 정성과 심혈, 로고를 깡그리 쏟아부으시였다.

자신의 탄생일에도 《금수산기념궁전》건설장에 나오시여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2. 16)

《금수산기념궁전》모형사판을 보아주시면서 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건설하도록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3. 1)



《금수산기념궁전》장식등도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4. 1)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것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고 계신다.

기념궁전을 건립하는 나날 그이의 마음속에서 끓어번진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실 주체의 성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시려는 의지와 충효심뿐이였다.

전체 인민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한 어버이수령님 탄생일인 4월 15일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침 첫시간부터 기념궁전건설장을 찾으시고 궁전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현지에 나오시여 오랜시간 계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4. 15)

대계단의 오르는 길과 내리는 길 경계표식은 장식이 요란하지 않은 스텡기둥에 금색실로 엮은 장식띠를 늘여 간단히 처리되였다.

설계가들은 초기 경계표식을 어떤 형식에 어떤 재질로 하여야 통계단에 어울리게 형상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모대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건축예술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명안을 내놓으시고 그를 완성케 하시여 대계단의 구성과 세부들이 완벽하게 꾸려지게 된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대계단의 스뎅란간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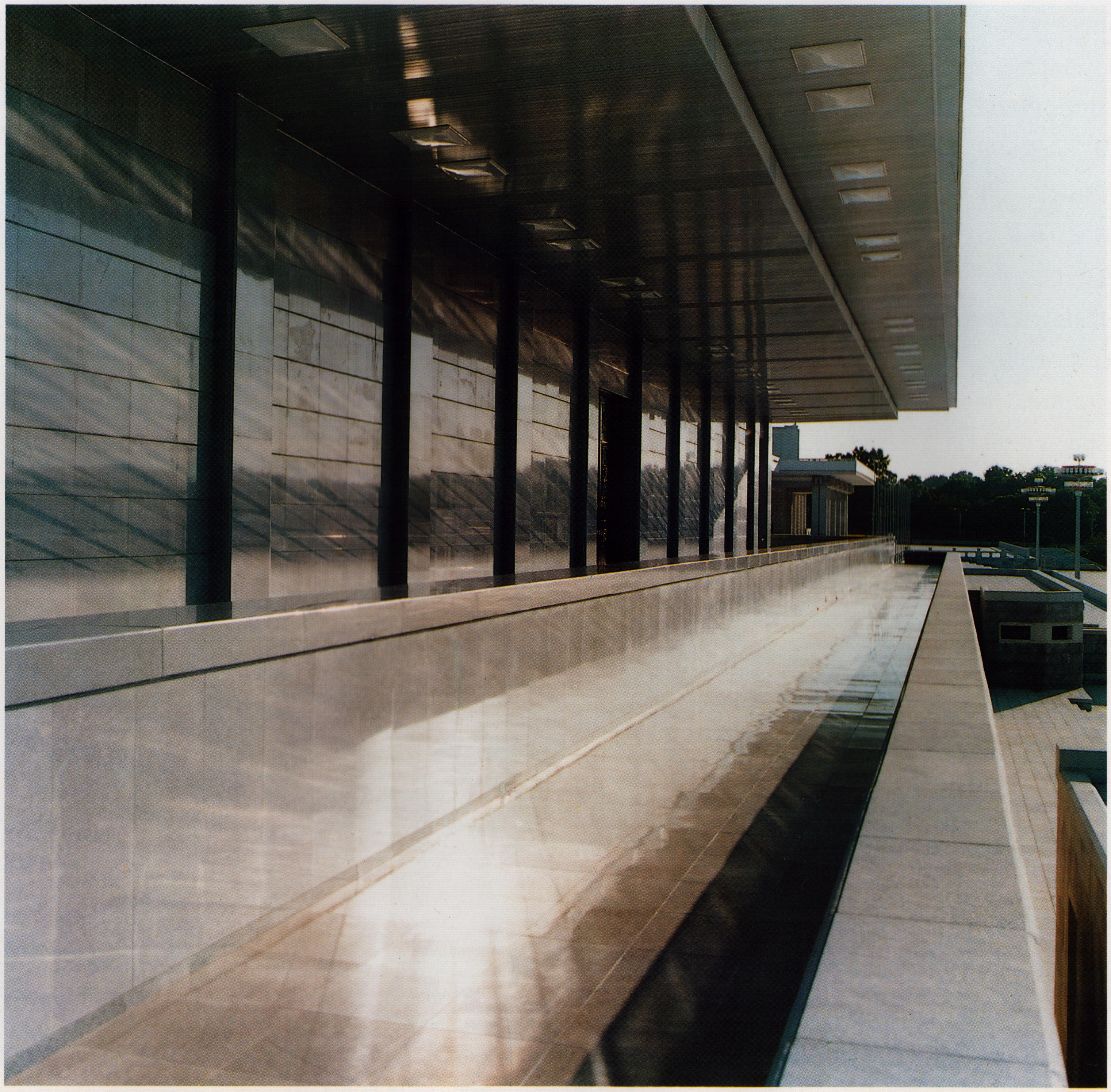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기본구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신념의 구호를 기념궁전광장 량쪽에 높이 세우도록 하시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구호의 글발들을 새겨보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각오를 더욱 높이 간직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마지막단계에 이른 《금수산기념궁전》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6. 15)

완공된 《금수산기념궁전》외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7. 1)

완공된 《금수산기념궁전》광장 주석단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7. 7)



어버이수령님을 잃은후 조선인민의 마음은 공장과 농촌,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시여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내여나가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로 달리고 있다.

우리 인민은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이를 모실 때면 가장 큰 감격과 격동에 휩싸이군 한다.

그러한 우리 인민이 《금수산기념궁전》개관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는 전동차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뵙게 된것이다.

달리는 전동차안에 그이께서 계시는것을 알아본 순간 《우리 장군님이시다!》라는 격정이 터져올랐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삽시에 달려와 열광적으로 만세를 웨치고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에 웃고 감격에 울며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 가슴속 열화를 분출시켰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근로자들이 리용할 궤도전차를 몸소 타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1995. 7. 7)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리는 궤도전차들

기념궁전으로 가는 금성거리에는 륜환선전용궤도전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고있다.

기념궁전을 찾는 사람들이 리용하게 되는 이 전차의 구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인민들이 불편없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할수 있도록 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웅심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다.

궤도전차정류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근로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는 정무원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는 해외동포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는 외국인들

방문록에 글을 남기는 근로자들과 해외교포들, 외국인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는 근로자들

편찬성원 :김복록, 리중길
편집 : 김인일
사진 : 김승균, 김한기, 리성일, 김진호
글 : 김혜희
교정 : 리경희
편성 : 량국순

금수산기념궁전

낸곳 : 외국문종합출판사 조선화보사
인쇄 : 외국문종합출판사 인쇄공장
발행 : 1996년 3월 30일 ㄱ-6051